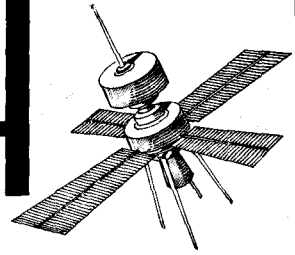


이달의

인테리어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갈증은 왜 계속되는가?

갈증은 왜 계속되는가?

계란값이 한개에 35원(대란기준)까지 하락했는데도 일부지방에서는 이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모양이니 한번쯤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보인다. (2월 25일 기준)

값이 이렇게 싼데도 소비는 미동도 하지 않는 다니 답답할 뿐이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생체 1kg당 600원에도 출하가 잘안되고 있는데 이닭들의 병아리값은 300~350원씩 입추한 닭들임을 생각할 때 그 손해는 수입 소를 사육한 농가에 비할 바 못되는데도 사회의 관심밖에 있다는 것이 기이할 뿐이다.

누가 권장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른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으나 우리의 육계산업 구조가 이렇듯 불안한 것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육

계 만수를 기르면 천만원은 간단히 손해보니 큰 소가 10마리 날아가는 셈이다. 얼마 있으면 닭고기 수매비축 얘기가 나올 것이고 계란의 경우에는 이미 축산진흥기금으로 서울, 경기 양계협동조합이 5백만개를 비축하고 그래도 값이 회복안되면 5백만개를 더 수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값이 떨어지면 수매비축으로 우선 갈증을 면하고 또 얼마지나 값이 하락해서 갈증이 나면 수매비축으로 목을 추기는 일을 반복해 왔다.

소위 정부의 수매비축이라는 것도 양계인들이 목마르다고 외치면 급수를 하자는 계획인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

소갈증이라는 병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증세로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먹는다면 잘못이다. 한없이 마셔도 갈증은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말이다.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길이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인데도 또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다.

양계업계는 당뇨병에 걸려있는 환자वाद 같이 인슈린이 없어 수급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불



안은 더해가고 갈증은 심해가기만 한다.

당뇨병을 치료할 명의(名醫)는 누구일까? 정부일까? 아니면 협회일까? 아니면 환자 스스로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가?

그 많은 처방들은 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는가?

갈증에는 우선 냉수를 마시는 것이 쉽기 때문에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86년도 사료수급 계획 발표

금년도 사료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을

1. 국내부존사료자원의 개발이용
2. 도입 사료원료의 적극적인 억제
3.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
4. 배합사료의 가격안정
5. 배합사료의 품질향상으로 정하였다.

이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입 사료 원료의 적극적 억제에 따른 국내산 원료의 사료 이용 문제이다.

2 항의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옥수수: 59천M/T
2. 보 리: 127 "
3. 대 두: 10 "

4. 기타 탈지강, 어분등 국내산 원료 우선 사용하는데는 대찬성이지만 수입 사료용 곡물가격이 상승될 경우 4 번의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쓸것이며 과연 축협사료의 공급량 확대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또 과거 거부럼 가격을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할 경우 5 번의 배합사료 품질향상과의 마찰이 생긴다.

배합사료의 품질은 검사업무의 강화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이다.



배합사료 생산계획

(단위 : 千M/T)

종 별	86 년 도		85 년 도		A / B
	생산량(A)	구성비 %	생산량(B)	구성비 %	
양 계 용 사 료	1,798	28.9 %	2,257	34.9 %	79.7 %
육 계 사 료	656	10.5	660	10.2	99.4
산란계사료	1,142	18.4	1,597	24.7	71.5

배합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사료곡물 다양화의 추진과 함께 옥수수 사용비율을 6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사료 품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며 옥수수가 기타곡물류보다 값이 쌀 경우에 제도적 경직으로 오는 손해도 예견된다. (사료 곡물사용 비율은 64% 이하로 축소하고 타피오카, 루핀시드등 활용을 증대한다)

배합사료 생산계획은 위의 표와 같다.

위의 표를 보면 전년대비 육계사료가 99.4%, 산란사료가 71.5%로 전체 양계사료를 약20%나 감축계획한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많은 종류와 다양한 원료를 혼합하여 값싸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하여는 시장경쟁을 통한 꾸준한 기술과 경영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수급계획이 ① 도입사료의 적극적 억제 ②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 ③ 배합사료가 격안정과 품질향상의 3 마리 토끼를 잡을수있을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제도, 완전한 정책이 있을수 없으며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안에 내포되

어 있는 반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자체가 자유를 원하지만 인간의 깊은곳에 구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으며, 자유 그 자체도 그 내부에는 자유와 반대되는 질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몰호르듯 운영하는것이 최선책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명의라 할지라도 사람의 자율적인 대사기능에 맡기지 않고 인공적으로 그 기능을 조절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다.

소변을 잘보기 위하여 이뇨제를 주사하고 소변으로 나가는 전해질 물질을 주사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한다면 환자의 몸은 쇠약하여져 죽음에 이를 것이다. 대변을 잘보기 위하여 변비치료제와 지사제로 변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이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는가?

혈압하강제와 혈압상승제로 사람의 혈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는가?

자연기능에 맡겨도 될만큼 우리 사료업체가 아직도 건강을 되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양제인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양제산물소비 홍보사업에 적극 동참하자.**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